

제3강

熱戰에서 '평화 없는 평화'까지: DMZ 냉전사

한모니까

(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)

목차

시작하며: 냉전사의 맥락에서 DMZ 보기

1. 냉전의 시작과 열전의 발화: 한국전쟁과 DMZ의 탄생

2. 장벽의 구축: 베트남전쟁과 DMZ의 무장화(militarization)

3. '평화 없는 평화': '자유의 마을'과 '평화의 마을'

맺으며: DMZ, 냉전사의 전형에서 제3의 길로

시작하며

: 냉전사의 맥락에서 DMZ 보기

DMZ 냉전경관

DMZ 지뢰 경고표식과 나비



DMZ 감시초소(GP)와 철책선(«뉴스1» 2019. 7. 1)



DMZ 철책선과 경계등(«연합뉴스» 2018. 7. 24)

냉전의 산물 DMZ

▪ DMZ는 냉전의 산물

- 왜 어떤 측면에서?
- 일반적으로, 남한과 북한의 대립 경계로만 인식
 - DMZ가 가진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상을 드러내지 못함. DMZ의 향후 변화 가능성과 미래를 충분히 상상하기 어려움.

▪ DMZ는 냉전이 응축된 공간, DMZ의 역사는 냉전사의 전형

- 세계 냉전의 형성기에 열전을 통해 탄생
- 베를린장벽 건설(1961) 이후 제3세계의 '제2의 열전기'에 본격적으로 철책 장벽 등 건설
- 막강한 군사 대치를 바탕으로 한 '동서냉전'의 선전장이자 '남북대립'으로서의 냉전이 작동.

냉전의 양상

■ '동서냉전'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, 공산주의 모델과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방 간의 체제 대립
- 대부분의 국가들, 소련과 미국의 양극적 대립 속에 어느 한 진영에 편입

■ 냉전의 지역적 다양성과 '남북대립'

- "(냉전은)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관계로 이루어진 체제"(권헌익)
- 한국전쟁을 시작으로, 1960년대 베트남전쟁, 아프리카의 대리전쟁, 라틴아메리카의 냉전, 쿠바위기 등. 국제적 역학관계와 지역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양상.
- 제3세계 국가들의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(좁은 의미의) 탈식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서냉전이 이전하여, 각 지역 고유의 갈등과 결합함으로써, 증폭되고 복잡해진 것(홍석률)
- 지역 고유의 갈등과 역사에 따라 지역적 다양성을 띠었지만, 미소의 개입과 그에 대한 대응 및 갈등이라는 공통점. 근본적으로 넓은 의미의 '탈식민' 즉 '남북대립' 문제.

■ '평화 없는 긴 평화'의 상태

-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, 총력전처럼 정치·이데올로기, 경제, 과학·기술, 사회·문화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이 동원되어 대립.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(베른트 슈퇴버)
- 주로 유럽의 현상으로 인식됨.

1. 냉전의 시작과 열전의 발화 : 한국전쟁과 DMZ의 탄생

한국전쟁과 DMZ의 탄생

■ 냉전의 시작과 한반도의 38도선 분단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.소를 중심으로 냉전 시작
- 일제식민지배로부터 해방, 동시에, 미군과 소련군의 38선 분할 점령(1945)

➔ 38선: 남북 분단경계선이자,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과 한반도 유입의 경계선, 동서냉전과 이중의 탈식민 문제가 복합하게 얽히고 증폭되는 경계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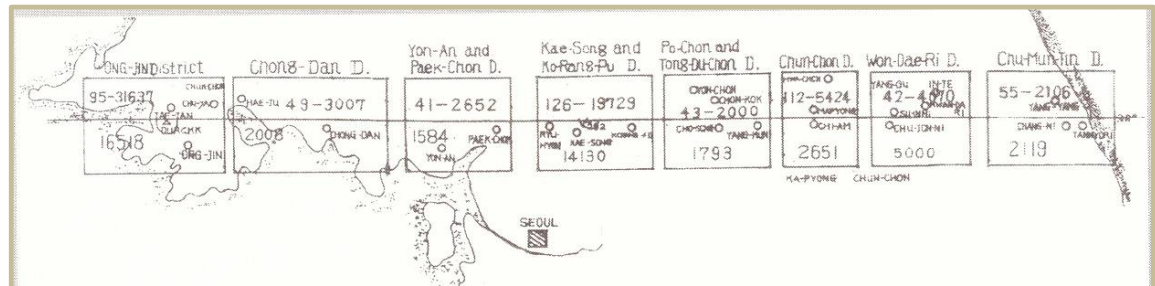
■ 38선 충돌(1948~50)과 전쟁 예견

“상호의 대치거리 100~300m를 격하고 있는 곳에서는 쌍방 간에 선전전이 시작되고 다음에는 육설이 오고 가고 마지막에는 사격전으로 번지고 마는 실태가 38선상의 전역에서 일과처럼 되풀이되었다.”

[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(1967), <<한국전쟁사 1: 해방과 건군>>, 506~507쪽]

“... 민족상호의 血鬪가 있을 뿐이니 內爭 같은 國際戰爭이요 外戰 같은 同族戰爭이다.”

[<남북협상을 聲援함>(문화인 108인 선언)>(1948. 4. 14)]



38선 충돌 주요 지점 및 통계(1949. 1. 1~10. 5)(주한미군 작성)(정병준, 2006)

한국전쟁과 DMZ의 탄생

■ 한국전쟁(1950~1953)

- 냉전기 최초의 열전
- 정전회담(1951~1953)과 전투 계속: '정전협정 조인까지 전투를 계속한다' & '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'
- 현재의 DMZ 일대:
정전회담 기간 전선이 교착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,
남북 양측의 진지가 구축되고 화력이 집중 배치된 곳,
유엔군과 중국군 포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.



전선교착시의 주요 전투지역(1951. 6.~1953.7)
(국가기록원 '6.25전쟁')



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. 258구 발굴
1951.11~1953.7 국군2, 9사단, 미군2사단, 프랑스군, 중공군 간 전투
(«한겨레» 2019. 11. 15)

한국전쟁과 DMZ의 탄생

▪ 군사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규정

“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.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.”

▪ 군사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책임(responsibility) 관련 규정

“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 부분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, 이북 부분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.”

→ DMZ, 남북분단 경계이자 국제적 냉전의 경계

2. 냉전 장벽의 구축

: 베트남전쟁과 DMZ의 무장화(militarization)

베를린 장벽

- 탈동독 운동: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동독인들
- 소련과 동독, 장벽 건설 결정과 축조(1961). 미국, 장벽 축조 상황을 주시한 채 유럽에서의 현상 유지 정책 기정사실화
- 냉전의 무대 이동: 유럽에서 제3세계로. 동아시아의 냉전은 베트남에서 열전으로 폭발



베를린 장벽
(«프्रेस리안» 2019. 11. 9)

베트남전 추가 파병과 DMZ 군사충돌

■ 한국군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과 DMZ 무장화

- 미국의 지역통합전략, 한·일 국교정상화
- 1966년 3월 한·미, 한국군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 합의
- 미국, 베트남 추가 파병과 DMZ 긴장이 가져올 한국의 안보 불안 여론 우려.
한국, 미국에 군사 지원 요구.
- 1966년 겨울, 한·미, 베트남 추가 파병을 우선 목표로 DMZ 대침투(counter-infiltration)체계 구축 계획 수립

■ 1966~68년 DMZ 군사충돌

- 선제공격과 보복을 구분하기 어려운 군사충돌들
- 1967년: DMZ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던 해.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 1949년 38선 충돌 연상.
- 1968년: 1.21사태와 1.23 푸에블로호 사건. 전쟁위기의 순간

DMZ 장벽 구축 구상 및 추진

■ 한국과 베트남의 DMZ 장벽 구상 및 경험의 공유

“베트남의 17도선에 계획되고 있는 방책(防柵)과 유사한 것을 한국 DMZ 일대에 세운다.”

- 1965년 구상, 1966년 구체 계획, 1967년 철책 구축. 고도의 특수장치들 포함.

■ 베트남 DMZ 장벽

- 1965년 베트남 DMZ 남쪽에 장벽 설치 고려. 1966년 10월 착공 및 완공 계획 구체화.
- 1967년 9월 맥나마라 국방장관, 철조망과 전자탐지장치로 된 대침투 방책 구축 계획 발표.
- 폭 24km의 밀림 제거 착수, 베트남을 동서로 가르는 64km 방책 구축, 야간투시적외선 장치와 정밀탐지 장치 포함.

■ 한국 DMZ 장벽

- 1965년 미1군사령관이 장벽 필요성 언급, 지시. 지뢰 등으로 강화된 100m 폭의 이중 철조망 구상
- 1967년 5월 미8군, 제2보병사단에 펜스 교체 지시
- 1967년 8월 미군, 서부 DMZ 철책 구축 시작

DMZ 장벽 구축

■ 철책선 설치

- DMZ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
- 서부전선 철책 설치(1967. 9),
중부전선(1968. 1 완성 단계), 동부전선(1968. 6 가설중)
- 휴전선 방어 개념의 변화: 거점 방어에서 선(線) 방어로.



«동아일보» 1963. 7. 26



«경향신문» 1967. 12. 25

■ 지뢰 매설

- 클레이모어 등 철책과 요새화된 벙커 둘레 매설.
- 한국전쟁 때 뿌려진 지뢰와 전후에 추가로 매설된 지뢰 존재.
- 유엔사, 지뢰가 제거되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DMZ 전 지역을 지뢰지대로 간주

■ 초목 제거

- 벌목 + 초목 통제(vegetation control) → 不毛地 장기화

“방책은 전장 24km로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뻗쳐있다. 방책의 높이는 10피트 정도, 쇠고리철망, 쇠기둥 및 둥근 철조망으로 이뤄져 있다. 방책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철문이 마련되어 있다. 미군은 철망을타리모양의 이 방책 말고도 대인 레이다, 적외선탐지기, 고성능망원경을 동원. ... 방책 주변에 있는 일체의 잡목림은 제거.” («경향신문» 1967. 12. 25)

3. ‘평화 없는 평화’

: ‘자유 의 마을’ 과 ‘평화의 마을’

‘자유의 마을’ 과 ‘평화의 마을’ 의 체제 선전

“마을등성이에 펼쳐진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처녀들, 인삼포전에서 예로부터 ‘불로장생’ 약재라 일러오는 고려인삼을 수확하는 농장원들, 풍년날알 실어나르는 트랙또르운전수도 흥에 겨워 이 노래를 부른다. (중략) 군사분계선너머에 있는 컴컴한 대성동마을을 바라보니 판문점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.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빈 단층집 같은 감이 났다.”

(조선로동당출판사 ‘판문점’)

“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도 봄 소식과 함께 농번기를 맞았습니다. ...194명 주민들은 130ha의 논을 가꾸기에 일손이 바쁩니다. ...접경지역 어린이들의 반공교육과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깨우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구김살 없는 이 어린이들의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. 그러나 이 조용한 마을 바로 저 너머에서 북한군은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24시간 허위선전에 광분하고 있으며 휴전협정을 위반, 비무장지대 안에 붉은 요새를 짓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.”

(국립영화제작소 ‘자유의 마을’)



DMZ의 ‘평화 없는 평화’

- ‘빈틈없는 방위태세’의 첨단과학·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와 군사시설들, 지뢰와 지뢰 경고판, 군사적 심리적 경관들
- 인간의 오랜 삶과 역사문화
- 자연생태



맺으며

: DMZ, 냉전사의 전형에서 ‘제3의 길’ 로

DMZ, 냉전사의 전형에서 제3의 길로

- DMZ 냉전사의 산물이자 성찰의 공간

- DMZ의 탈냉전과 제3의 길

- '수복지구'와 '신해방지구' 경험

- : 세계 최초 체제 전환 사례

- 전쟁을 통해 일방적인 체제 편입의 길을 겪음.

- DMZ의 미래는?

참고문헌

-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, 《한국전쟁사 1: 해방과 건군》, 1967
- 권헌익 지음, 이한중 역, 《또 하나의 냉전: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》, 민음사, 2013
- 베른트 슈퇴버 지음, 최승완 옮김, 《냉전이란 무엇인가: 극단의 시대 1945~1991》, 역사비평사, 2008
- 정병준, 《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》, 돌베개, 2006
- 한모니까, <'수복지구'와 '신해방지구', 분단의 경계지역에서 통일·평화의 시험지역으로> 《황해문화》 100, 2018
- 한모니까, <1960년대 비무장지대(DMZ)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> 《사학연구》 135호, 2019
- 한모니까, <냉전사의 응축 공간 DMZ> 《한반도 DMZ》, 2020
- 홍석률, <냉전의 예외와 규칙> 《역사비평》 110, 2015

감사합니다.